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농업 시장 동향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의 절반(약 47%)이 가량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쌀, 밀가루 등 기본적인 품목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수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고품질 농산물의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수입식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농업기술 개발, 가공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 농업시장 현황

방글라데시 통계청(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BBS)에 따르면, 2014~2015년의 농작물, 가축, 어류, 임산물이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16%를 차지했으며,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한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농작물은 전통적인 자급 농업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쌀, 밀가루, 옥수수, 콩, 과일, 채소, 닭고기, 어류, 해산물 등 다양한 농수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쌀은 방글라데시의 주식이다. 한편 제한된 천연자원이나 가용성이 낮은 농지들로 인해 내염성(耐鹽性), 내수성 작물 재배를 위한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신기술들은 향후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내 중산층(추정치 3,000만 명 이상)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주로 밀이나 쌀과 같은 필수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다카(Dhaka)나 치타공(Chittagong) 같은 부유한 도시 지역에서는 고가(High-value) 수입 농산물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수입 과일이나 가공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방글라데시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예상) |
|---------|--------|--------|------------|
| 총지역생산 | 28,365 | 30,424 | 32,000 |
| 총수출규모 | 1,619 | 1,602 | 1,650 |
| 총수입규모 | 6,653 | 6,594 | 6,500 |
| 미국산수입규모 | 494 | 496 | N/A |
| 총시장규모 | 33,398 | 35,415 | 36,850 |

*총시장규모=(총지역생산+총수입)-총수출

방글라데시 가공식품 시장 현황

방글라데시 가공식품산업은 전체 제조업생산가치의 약 12.3%, 전체 제조업 노동력의 6%를 차지한다. 가공식품 종사자는 방글라데시 전체 노동인구의 2%에 해당되며 2012~2013년 방글라데시 GDP의 7%를 차지했다.

가공식품분야는 지역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약 246개에 달하는 중간 규모의 식품 제조 기업이 제과제빵 제품, 과일 및 채소, 씨리얼, 유제품, 과일 주스, 다양한 식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식음료 분야의 연간 추정 GDP는 83억 달러로 추산된다.

방글라데시 농업관련 진출유망 부문

1차 산업 개발 움직임에 힘입어 관련 농업 기구 및 기술,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 종자, 비료나 2차 가공을 위한 유제품 가공 기구, 어류 가공 기구, 통조림제조 기구 및 기술분야가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냉동 저장고와 사일로와 같은 대규모 저장시설, 농업인프라 컨설팅 서비스와 솔루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방글라데시-농업기구 및 투입자원(Inputs), 2017. 10. 16
<https://www.export.gov/article?id=Bangladesh-Agricultural-Sector>